

임실N치즈 · 요구르트 보급 확대

남원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임실군, 우유 칼슘 대장암 발병률 위험 줄여... 초 · 중 · 고 학교급식 제공

임실군이 대장암 발병률 위험을 줄이는 건강한 먹거리인 임실N치즈와 요구르트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현재 임실치즈농협과 12개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다양한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유통·판매 해오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칼슘 함량이 높은 발효식품인 치즈와 요구르트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저지중 보급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지중 젖소는 영국 황실에서 공급되는 고급 우유로 더위에 강하고 장수성이 높으며 후산성체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지중 젖소는 일반 홀스타인 젖소보다 우유 내 지방 함량이 15~20%, 칼슘 함량은 15~1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형분이 높은 저지유를 이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고로 볼과 구를 모색하고자 지속 연구 중이다.

군은 특히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올해 3월경부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34개 교육기관의 학교급식에 요구르트를 납품 예정이다.

현재는 임실치즈마을 목장형 유가공



임실군이 대장암 발병률 위험을 줄이는 건강한 먹거리인 임실N치즈와 요구르트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업체인 '꽃과목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성인 다이어트나 혈당 수치 조절, 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구르트를 3월경부터 임실치즈농협에서도 대량 생산하여 공급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등 건강한 먹거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50세 미만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20~49세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세계 1위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의 연구는

작했다.

칼슘이 높은 식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유제품에서 치즈와 요구르트가 있다. 대한민국 성인 기준 일일 칼슘 권장 섭취량은 약 700~800mg으로 치즈에는 약 30g당 2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요구르트에는 125ml에 약 310mg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 식품별 칼슘 흡수율에서는 멸치 25%, 시금치 4%, 콩 20%, 우유 40%로 우유가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제품 섭취 시 많은 사람들이 소화 장애 중 하나인 유당불내증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발효식품인 치즈와 요구르트는 생산과정에서 유당이 유산균으로 인해 유산으로 분해됨에 따라 유당 함량이 낮아져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잘 소화할 수 있다.

(재)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정석근 소장은 "저지유를 활용한 다양한 숙성 치즈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홍보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비되기 위해 저지 사육두수 확대와 저지유 유제품 제조 기술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조직 개편 · 인사 단행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산업연구원)은 1월 20일자로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핵심 기술로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과 남원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연구원의 역할과 성과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개편 방향은 △목표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와 기획업무의 분리 △시설 구축 업무의 행정연계 강화 △비R&D사업 중복업무 배제 및 통합관리를 위한 기업육성팀에 총괄기능 부여 △바이오연구실과 인증평가실을 R&D분야별 기능 중심 팀 편제 등이다.

개편후 3월 7일 체제로 △정책기획실은 국내 유일 농생명바이오산업 전주기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입주 활성화하고 산업연구원의 자립화기반을 구축하고자 행정팀, 연구기획팀, 기업육성팀으로 운영한다. △바이오연구실

은 첨단 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지역 특화 고부가가치산업 견인을 목적으로 소재개발팀과 생산기술지원팀으로 운영한다. △바이오인증평가실은 남부권(전라도, 경남) 유일 원스톱 분석·인증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분석인증팀과 임상평가TF팀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연구원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영철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성과 창출을 통해 남원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임실군이 내수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및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임실시장 및 오수상점가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과 장보기 및 시장 내 음식객 이용하기 등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했다.

전통시장 활력 증진 및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50만원,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설 연휴 기간(1.1~2.10) 디지털(카드형, 모바일) 15% 확대 할인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장보기 행사는 최근 연발 소비심리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축된 상권이 회복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설 연휴 28~30일 강천산 · 용굴산 무료 개방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대표 관광 명소인 강천산군립공원과 용굴산 하늘길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강천산군립공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



방된다. 아울러, 용굴산 하늘길은 설 연휴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신소득작목 사전 수요조사 신청 접수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5년도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실증연구 과제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1월 31일까지 각 지역 농민상담소 및 이백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발굴 실증연구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57건이 수행되었으며, 추진 성과로 과수 냉해방지 열방상판 실증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으로 확대되었고, 논두렁 물막이판을 이용한 논물 유실방지 및 잡초방제 실증연구는 읍·면 특화사업으로 확대 되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생분해 비닐 활용 양파 멀칭, 국산 FO필름 포도 재배, 사과 간이 비가림 재배, 사과 고밀식 및 다층재배는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한 2025년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실증연구는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10개소, 실증연구 확대 및 심화연구 사업은 5천만원으로 1~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수요조사와 사전 검토 및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과제 수행농업인 선정, 실증연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평가, 사업추진,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우수과제는 심화 실증 사업 추진 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순창군이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굴삭기, 지게차, 스kid로더 등 소형중장비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이 실시된다.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이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본소)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 동반자 지정

치매 극복 선도단체 '남원원협'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장 한용재)는 새로운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남원원협(조합장 김용현)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남원원협은 소속 전 직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았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응호적인 태도를 갖추고 치매 예방 활동은 물론 치매 극복 환경을 만드는



따뜻한 치매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치매 파트너로서 일상생활 속

에서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기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기 △교육을 통해 배운 치매에 관한 정보 주변에 알리기 등 치매 친화적인 다양한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다양한 관계기관과 뜻을 모아 시민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설 명절맞이 군부대 위문 방문

염기남 순창 부군수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773부대 3대대와 1625부대를 찾아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부군수는 지역 안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최근 한파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

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군부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염기남 부군수는 "우리 군민들이 평화롭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덕



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군으로서 역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